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 D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

Effects of Post Traumatic Growth of Firefighters

-Focused on the D-city fire official-

Hee Sook Kim*, Chun Youn Nam**, Ho Jin Lee***

Professor,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680, Gukchaebosang-ro, Jung-gu, Daegu Korea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which influence on post traumatic growth of firefighters. Method: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firefighters from D city who were doing activities like extinguishing fire or rescuing sufferer at fire or accident scenes. Date was collected from January 13th to March 24th, in 2014. Research tools were post traumatic growth, problems-focused coping, communication ability, perception of job stress, self esteem. Data were analyzed , and included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 post-hoc using SPSS IBM WIN 12.0.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by stepwise selection were also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post traumatic growth. Results: Post Traumatic Growth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blems-focused coping, communication ability, self esteem. Effective variables were problems-focused coping($\beta=.53$, $p<.000$), communication ability($\beta=.19$, $p<.021$), and job grade($\beta=-0.12$, $p=.002$), sex($\beta=-0.11$, $p=.003$). These variables explained 56% of the variance in post traumatic growth.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eded to improve on problem-focused coping and communication ability for the post traumatic growth of firefighters.

Key words: firefighter, post traumatic growth

* The First Author. Tel. +82-53-420-4927, Fax. +82-53-422-4926. E-mail. hskim8879@knu.ac.kr

** Corresponding author. Tel. +82-01-2788-9344.E-mail. cosove@nate.com

***Tel. +82-01-9030-5730. Fax. +82-53-353-3641. E-mail. hojin257@hanmail.net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Sep. 22, 2014 / Revised: Oct. 20, 2014 / Accepted: Oct. 24, 2014

국문초록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자존감, 의사소통 능력, 문제중심 대처와 직무스트레스 지각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 조사연구로 소방공무원들의 외상후 성장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제중심적 스트레스대처의 관리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D시의 소방공무원 151 명이었다. 외상후 성장, 자존감,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중심적 대처, 직무스트레스 지각 척도를 사용하여 2013년 1월 13일 부터 3월 2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은 연령에서 40대 이상의 경우이고, 결혼 유무에서는 기혼이며, 직급에서는 소방사이며, 경력에서는 6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은 평균 40.1(±12.98)점, 문제중심적 스트레스대처는 평균 49.3(±9.80)점이었으며 자존감은 27.5(±3.77)점, 의사소통 능력 40.3(±7.63)점, 직무스트레스 지각은 48.1(±11.53)점이었다. 외상후 성장과 문제중심적 스트레스대처 간에는 정 상관으로 나타났고($F=.75, p<.001$),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제중심 대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beta=.53, p<.000$), 의사소통 능력($\beta=.19, p=.021$) 및 경력 3년이상 6년 미만인 경우였으며($\beta=-.13, p=.026$), 외상후 성장에 대한 문제중심적 대처 설명력은 60%였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이 스트레스에 대해 문제중심적 대처 및 의사소통 정도가 높고 경력이 3년 미만이거나 6년 이상 일수록 외상후 성장 정도가 높음으로 평상시 스트레스에 문제중심적 대처방법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익히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외상후 성장을 적게 경험하는 경력 3년 이상과 6년 미만의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문제중심적 대처방법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위한 근무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소방공무원, 외상후 성장, 자존감, 의사소통 능력, 문제중심 대처, 직무스트레스 지각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상시 화재,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 가스폭발, 지진 및 홍수 등 다양한 재난과 재해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재난과 재해의 최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급박한 긴장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각종 재난 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며, 자연재난과 산업사고, 대형교통사고 및 인적재난들이 발생할 때마다 출동하여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고 명시(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9)되어 있으며, 최근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각종 재난이나 재해가 증가함으로써 이들의 업무량은 더욱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개인적 경험을 외상(trauma)이라고 하며 직업적으로 늘 외상사건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은 직업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외에도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의 유병률이 높다(Heinrichs, *et al*, 2005).

Judith(2003)은 충격사건을 경험하고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소방공무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날 위험이 증가하여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그중 12%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에 적합한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보고된 소방 방재청 자료에서도 자살하는 소방공무원의 숫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자살한 소방공무원이 32명으로 같은 기간 순직자 수 35명과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오진환, 2013). 2009년과 2011년에는 순직자가 각각 3명 과 8명인데 반해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각각 9명으로 순직자 수보다 많다. 이와 같은 소방공무원의 사망원인 중 자살은 11%로 일반 국민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4%인 것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치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일부 연구자들은 외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병적인 결과를 유발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외상 이전 보다 더 나은 기능과 적응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Joseph, *et al*, 1993; Lyons, 1990; Tedeschi & Calhoun, 1995). 특히 Tedeschi & Calhoun(1995)은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을 겪고 거기에 대처한 결과로 생겨난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외상후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외상후 성장은 외상 사건이나 위기 사건 후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한다(Zoellener & Maecker, 2006). 외상후 성장의 경험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각종 사고와 재해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인명구조, 부상자의 응급 처치 및 병원이송, 화재진압, 재난수습 시 예기치 못한 각종 상황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기도 하며 끔찍한 장면들을 목격하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효율적으로 자신의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최혜경, 2010).

외상후 성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방, 경찰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외향적 성격, 훈련, 외상적 사건, 조직적 만족감이라고 보고한 연구(Paton, 2005)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도적 반추와 낙관성이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윤경, 2008)가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과 유사하게 빈번한 외상에 노출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Jun, 2009)가 있다. 이외의 국내외 외상후 성장 관련 선행 연구들은 소방공무원의 외상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보다는 질병(Sawyer, *et al*, 2010), 사별(Taku, *et al*, 2008), 전쟁(Lee, Luxton, *et al*, 2010), 성폭력(Kleim & Ehlers, 2009), 사고(Nishi, *et al*, 2011)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Judith, 2003), 사건충격(김희숙 외, 2013) 및 정신건강(이호진, 2010; Yasuaki saijo, *et al*, 2008)에 대한 것으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긍지와 관련된 개념인 외상후 성장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으로 자존감, 의사소통, 문제중심 대처와 직무스트레스 지각을 선정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정책이나 지원, 교육 등의 개선을 돕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개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문제중심 대처방식 및 직무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과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문제중심 대처방식 및 직무스트레스 지각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소방공무원 특성

소방공무원은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로, 과로사부터 훈련이나 화재진압 현장에서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소방공무원을 다른 분야의 공무원들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지게 하는 특성으로 작용한다. 소방공무원을 둘러싼 위협을 유발하는 요소들은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현성호, 2010). 또한 소방공무원은 화재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이다(소방공무원법, 2010 일부개정). 최근 소방공무원의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들의 정신건강과 나아가 건강한 삶의 질은 높여주는 것에 필요한 요인들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2. 외상후 성장

외상후 성장 수준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업무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서 중요한 주제(Paton, 2005)이다. Tedeschi & Calhoun(1996)은 다음과 같은 외상 후 성장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perceived changes in self)이다. 이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위

상의 경험 이후로는 앞으로 겪을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이 더 강해졌다고 느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인관계의 변화(changed sense of relationships with others)이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외상 사건들의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게 되고, 이는 외상 사건을 경험하기 전보다 자신을 더 많이 표현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인생관의 변화(changed philosophy of life)이다. 이는 외상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자신의 존재자체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되고, 더 나은 삶의 관점을 갖게 하며, 소중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의 변화를 가져오며 삶을 더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정운경(2010)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도적 반추와 낙관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의도적 반추를 외상 당시와 최근의 반추로 구분하여 외상 후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외상 당시의 의도적 반추만은 산출되었고, 최근의 반추와 낙관성은 상호 작용효과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전유진(2010)은 소방공무원과 유사하게 빈번한 외상에 노출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을 연구한 결과,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자존감

Bandura(1977)는 자존감을 우리의 인생 생활에서 필수적이며 마땅히 가져야할 경험으로서 강력한 인간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부족하면 우리의 심리적 성장에 장애를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Rogenberg(1965)는 자존감을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한다. 즉 자존감은 심리적 건강의 핵심이며(Gover,1991)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 적응 및 건전한 성격발달과 긍정적인 자기실현에 중요한 요소이다(Coopersmith,1981). Daniel & John(1991)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간에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직무 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을 유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업무특성 상 상시 노출되는 스트레스나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는 물론 심리적 영역을 위협하고 이는 본인은 물론이며 이들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들의 건강 및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능력이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대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사용가능한 의사소통행위나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Wiemann, 1977), 의사소통은 사람들의 대인관계 상황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활동으로 이에 대한 정의는 다양(김세은, 2009)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집단,

조직과 같은 사회적 주체들 간에 어떤 의미가 담긴 메시지나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공유하는 사회적 과정을 말한다(이광자, 2006). 의사소통은 라틴어 communis에서 유래되어 공동(common)과 공유(sharing)라는 의미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간에 언어나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의사, 정보, 태도, 신념을 전달하고 반응을 받으면서 상호간의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정의(김혜숙 외, 2000)하기도 한다. 소방공무원의 만족스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생산적인 대인관계와 친밀한 인간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능하다. 이에 긴박하고 위기상황에서의 민원인과 동료 간의 의사소통 능력이 외상후 성장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연구될 필요가 있다.

5. 문제중심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란 일상생활에서 직면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반응으로 문제 해결방식과 행동전략을 의미 한다(Folkman & Lazarus, 1984). 또한 Lazarus & Folkman(1984)은 대처를 스트레스와 긴장을 감소하고 인내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 하였다. 대표적인 PTSD 증상집단으로 소방공무원은 대인관계 상황이나 문제 해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보다는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소극적 대처의 지속적인 사용은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켜 정서적 불편감을 초래 할 수 있다. 한편, 소방공무원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소극적 대처 혹은 회피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PTSD 증상이 심하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이성진·조용래, 2009).

또한, 소방공무원의 PTSD 증상과 정서 지능간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역할을 살펴본 연구에서 적극적 대처는 의미 있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영,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대처방식중 적극적 대처방식에서 문제중심적 대처만을 선택하여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적 대처방법을 사용이 외상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함이다.

6. 직무스트레스 지각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현장에 대한 긴장감, 불안감, 긴박감 등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24시간 근무방식, 야간출동, 빈번한 출동 등으로 쌓이는 육체적 스트레스로 구별할 수 있다. 또한 화재 진압, 예방 등 소방 고유 업무, 소외감에서 오는 공허감, 동료의 급작스러운 순직에서 오는 허탈감과 자괴감 등 여러 유형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손옥경, 2005). 강성완(2005)은 스트레스와 조직성과를 연구하였다.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는 직무특성요인, 역할관련요인, 인간관계요인, 경력개발요인, 욕구 및 가치요인, 생활스트레스 요인의 6개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소방공무원의 근무경력이 10년 미만인 자가 15년 이상의 경력자 보다 탈진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기혼보다는 미혼인 경우 탈진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3-6년의 근무경력인 경우 소진점수

가 가장 높다고 최혜경(2010)의 연구에서 보고된다. 이상구(2007)의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다른 어느 직업보다 위험한 곳에 뛰어들어야 하고, 화재 재난은 예측할 수 없으며, 소방공무원은 화재나 재난현장에서 개인의 안전보다는 주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심적인 압박감이 있다고 정의 하였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정도가 직무스트레스를 지각하는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연구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대상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을 조사하고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실증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D시 소재 4개 구역 소방서 중 인구수와 출동 빈도 수, 센터 구성인원 수가 비슷한 4개의 소방서에 먼저 방문하여 기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본 연구의 목적, 설문조사내용 및 설문지 작성법에 대한 서면 내용을 읽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119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구조·구급 및 행정 소방공무원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2(2009)에 따라 유의수준 $\alpha = .05$, 중간크기의 effect size $d = .15$, 검정력 $1 - \beta = .95$ 을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에서 필요한 표본 수에 대해 독립변수 6개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표본크기가 146명이었다. 최대 탈락률 20%정도를 고려하여 180부를 배포하여 수집된 자료는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29부를 제외하고 총 151명이었다.

2. 연구 도구

1) 외상후 성장(Post Traumatic Growth)

본 도구는 외상후 성장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로써 Tedeschi 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외상후 성장척도(PTGI) 21문항을 송승훈 외(2009)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하여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영적인 상태변화를 포함하였다. 각 문항은 6점 Likert식 척도로 '경험하지 못함' 0점에서 '매우 많이 경험' 5점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2) 자존감(Self-esteem)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로서 Rosenberg(1965)의 self esteem 척도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것이다. 긍정적 문항5개와 부정적 문항5개의 총1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로 부정적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병재(197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3이었다.

3)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Ability)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이석재 외(2003)이 대학생/성인용으로 개발한 의사소통 능력 평가 척도를 사용한다. 개발 당시 도구는 해석능력, 역할수행능력, 자기제시능력, 목표설정능력, 메시지 전환능력의 총 5개의 능력요소로 구성되고, 이는 다시 7개의 하위요소로 구분되어 있다. 능력요소별 하위 요소는 해석능력에는 정보수집, 경청이 있으며, 역할수행능력에는 고정 관념적 사고극복, 창의적/개방적 의사소통, 자기제시능력에는 자기 드러내기, 목표설정능력에는 주도적 의사소통, 메시지 전환능력에는 타인관점 이해로 각각 7 문항 식으로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설정능력의 주도적 의사소통과 메시지 전환능력의 타인관점 이해를 중점적으로 선택하여 14문항으로 선택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까지의 5점 Likert로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석재 외(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2$ 이었다.

4) 문제중심 대처방식(Problem-focused of coping)

본 도구는 Lazarus & Folkman(1984)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도구를 김정희(1987)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한 62문항 중 강해주(2006)이 수정·보완하여 문제중심 대처방식과 정서중심 대처방식만을 측정하는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중 하위영역인 문제중심 대처방식만을 측정하는 2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 4점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중심 대처방식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강해주(200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5) 직무스트레스 지각(Perception of job stress)

소방공무원의 특수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로, 이 도구는 스트레스 지각에 따른 반응을 생리, 심리, 행동적 반응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도록 Parker & Decotiis(1983)가 개

발한 것을 김정희(2002)의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정말 그렇다’는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방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희(200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였으며, 본 연구는 .95이었다.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1월 13일 부터 3월 21일까지였으며 헬싱키선언에 입각한 윤리적 고려를 통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사전에 D시 소방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구급 대응 구조과 담당자에게 설명하여 기관장의 허락을 받았으며, 설문지 내용에 대해서는 간부회의를 통해 내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증 받았다. 그 후 본 연구자가 4개 소방서의 담당자에게 연구목적과 설문지 내용에 대해 교육 한 후 배부하였다. 자료 수집 대상자는 4개 소방서 별로 규모에 따라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수를 감안하여 할당하였으나 각 소방서에서는 화재·구조·구급 출동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할당된 인원만큼 임의표집 하였다. 배부 시 본 연구의 목적,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한 뒤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서면 동의서를 받았고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응답하고 함께 배부된 봉투에 넣어 밀봉을 한 후 회수하였으며 소요시간은 20분 정도였다.

4. 자료분석 방법

본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2.0 for Window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외상후 성장, 자존감, 의사소통 능력, 문제중심 대처방식 및 직무스트레스 지각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2) 제 특성에 따른 사건충격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3)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 4)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으며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와 상태지수(Condition index)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

본 연구 대상자의 분포를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39세 미만이 64.2%, 40세에서 49세가 29.1%, 50세 이상이 6.6%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 69.5%, 미혼 30.5%, 교육수준은 대졸이상 73.5%, 초대졸 17.9%, 고졸 8.6%순이었으며, 종교는 있는 경우 35.1%, 없는 경우가 64.9% 이었다.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에서 대상자의 근무부서는 구조, 구급대 64.2%가장 많았고, 직할파출소가 13.2% , 소방서 6.6% 순이었다. 현재의 직급은 소방사 46.4% 소방교 33.8% 소방장 19.9%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3년 이상 6년 미만은 37.1%으로 가장 많았으며, 6년 이상 10년 미만이 24.5%,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6.6%였고, 3년 미만은 10.6%, 15년 이상은 11.3% 이었다. 1주에 경험하는 충격 현장 경험의 횟수는 1주에 1회가 56.6%로 가장 많았으며, 2회 이상이 23.8%, 없음 20.5%, 순이었다. 1주 출동횟수는 10회 이하가 80.8%로 가장 많았고 11회 이상은 19.2% 순이었다(<표 1>).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 수준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대상자의 연령이 40-49세 경우에 44.8점(±11.40)으로 외상후 성장 수준이 높았고(F=9.32, p=.001), 대상자의 결혼상태가 기혼인 경우에 42.5점(±12.72)으로 외상후 성장 수준이 높았으며(F=3.69, p=.001), 직급상태가 소방사인 경우에 35.5점(±12.67)으로 외상후 성장 수준이 높았다(F=9.72, p=.001). 경력의 경우 6년이상 10년미만 경우가 44.4점(±11.25), 사건현장경험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9.72, p=.001). 그 외 학력, 근무부서에 따른 외상후 성장 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N=151)

제 특성	범주	n(%)	M(SD)	t/F p Scheffe
연령 (세)	≤39a	97(64.2)	36.9(12.95)	9.32 <.001 b,c>a
	40-49b	44(29.1)	44.8(11.40)	
	≥50c	10(6.6)	49.5(9.30)	
결혼상태	기혼	105(69.5)	42.5(12.72)	3.69 <.001
	미혼	46(30.5)	34.4(11.86)	
학력	고졸	13(8.6)	47.1(7.32)	2.91 .058
	초대졸	27(17.9)	42.2(11.75)	
	대졸이상	111(73.5)	38.7(13.52)	
종교	유	53(35.1)	43.6(11.63)	2.52 .013
	무	98(64.9)	38.1(13.33)	
근무부서	본부	14(9.3)	41.0(12.07)	2.29 .063
	소방서(행정)	10(6.6)	44.4(11.40)	
	소방서(상황실)	10(6.6)	48.5(11.02)	
	직할파출소	20(13.2)	43.0(9.78)	
	구조, 구급대	97(64.2)	38.0(13.63)	

<표 1>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N=151)(계속)

제 특성	범주	n(%)	M(SD)	t/F p Scheffe
직급	소방장a	30(19.9)	46.4(10.30)	10.03 <.001 c>a,b
	소방교b	51(33.8)	42.6(12.75)	
	소방사c	70(46.4)	35.5(12.67)	
경력 (년)	<3a	16(10.6)	39.1(13.27)	9.72 <.001 c,d,e>b
	3-<6b	56(37.1)	32.8(11.52)	
	6-<10c	37(24.5)	44.4(11.25)	
	10-<15d	25(16.6)	47.1(12.33)	
	≥15e	17(11.3)	45.0(10.67)	
사건출동경험 (회/주)	0a	31(20.5)	42.8(11.43)	4.44 .013 a,b>c
	1b	84(55.6)	41.4(12.35)	
	≥2c	36(23.8)	34.6(14.42)	
사건현장경험 (회/주)	≤10	122(80.8)	40.3(12.86)	0.50 .617
	≥11	29(19.2)	39.0(13.66)	

2.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 , 자존감, 의사소통 능력, 문제중심 대처방식 및 직무스트레스 지각 정도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 수준의 평균 점수는 40.1(±12.98)이었고, 자존감은 27.5(±3.77)이고, 의사소통 능력은 40.3(±7.63)이며, 문제중심 대처방식의 평균 점수는 49.3(±9.80)이고, 직무스트레스 지각은 48.1(±11.53)로 나타났다(<표 2>).

<표 2> 외상후 성장, 자존감, 의사소통 능력, 문제중심 대처방식 및 직무스트레스 지각 정도(N=151)

변수	min	max	M	SD
외상후 성장	13	70	40.1	12.98
자존감	20	39	27.5	3.77
의사소통 능력	22	59	40.3	7.63
문제중심 대처방식	27	79	49.3	9.80
직무스트레스 지각	16	75	48.1	11.53

3. 외상후 성장과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문제중심 대처방식, 직무스트레스 지각간의 상관관계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 수준과 자존감($r=.27, p<.001$), 의사소통 능력($r=.68, p<.001$), 문제중심 대처($r=.75,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직무 스트레스($r=-.41, p<.001$)과는 유의한 부적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문제중심 대처는 자존감($r=.47, p<.001$), 의사소통 능력($r=.78,$

p<.001)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직무 스트레스(r=-.46,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자존감은 의사소통 능력(r=.43,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직무 스트레스(r=-.21, p<.010)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은 직무 스트레스(r=-.48,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표 3>).

<표3> 외상후 성장과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문제중심 대처방식, 직무스트레스 지각간의 상관관계(N=151)

변수	외상후 성장 r (p)	문제중심대처 r (p)	자존감 r (p)	의사소통능력 r (p)	직무 스트레스 r (p)
외상후 성장	1.00				
문제 중심 대처	0.75 (<.001)	1.00			
자존감	0.27 (<.001)	0.47 (<.001)	1.00		
의사소통 능력	0.68 (<.001)	0.78 (<.001)	0.43 (<.001)	1.00	
직무스트레스 지각	-0.41 (<.001)	-0.46 (<.001)	-0.21 (0.010)	-0.48 (<.001)	1.00

4.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대상자의 외상후 성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외상후 성장과 관련성 있는 변수인 문제중심 대처, 자존감, 의사소통 능력과 직무스트레스 지각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변량확대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218-2.682 으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등 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였다. 특히 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1.0을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어 회귀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등 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였다. 특히 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1.0을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어 회귀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결과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 수준 예측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74.94, p<.001),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제중심 대처(β=.53, p<.001), 의사소통 능력(β=.22, p=.008)이었고, 경력(3년이상 6년미만)(β=-.13, p=.026)이었고, 이들 변수의 외상후 성장에 대한 설명력은 60%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N=151)

변수	B	S.E	β	t	p	Adjusted R2	F	p
(상수)	-8.40	4.36		-1.93	.056		74.94	<.001
문제중심대처	0.70	0.11	0.53	6.20	<.001	0.57		
의사소통 능력	0.38	0.14	0.22	2.71	.008	0.59		
경력 (3년이상 6년 미만)	-3.44	1.53	-0.13	-2.25	.026	0.60		

※ VIF 1.218-2.682, Durbin-Watson: 1.91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자존감, 의사소통, 문제중심 대처 및 직무스트레스 지각이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즉 고위험 직업군인 소방공무원들이 직면하는 외상적 사건에 대한 충격은 감소시키고 오히려 이를 통해 성장하도록 영향을 주는 외상후 성장과 관련된 변수를 확인함으로써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은 연령, 결혼상태, 종교, 직급, 경력, 사건 출동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나이가 40-49세인 경우 다른 연령대 보다 외상후 성장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연령이 30대 미만보다 40대 이후의 외상후 성장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영재, 2012)와 일 지역 암환자의 외상후 성장에 관한 연구결과(최주희, 2010)과 일치한다. 이는 20-30대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상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이며, 자아정체성이 확립되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발달 단계 상의 특성으로 볼 때, 외상으로 인해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순조롭지 못하여 내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박아청, 2010, 재인용). 반면 40-50대는 중년기로서 심리·사회적인 생산성(generativity productivity)의 발달과업에 직면하는 시기로서, 생의 의미가 다시 제기되는 시기이다(박정묘, 채준호, 2007; Erickson, 1969).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인 경우가, 종교 유무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외상후 성장 정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결혼 상태나 종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는(김영재, 2012)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과 배우자의 지지가 외상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정인명, 2009) 연구와는 일치하며, Weiss(2004)의 유방암 생존자의 남편들에 대한 외상후 성장 연구에서 부부가 서로 지지하고 헌신할 경우 외상후 성장이 더 잘 이루어 진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직업 상 각종 심각한 외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혼인 경우 배우자 존재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종교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영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외상후 성장이 높아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직급과 경력의 경우에는 계

급이 올라갈수록 외상후 성장의 전반적인 점수들이 다소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후 성장을 직접 조사한 자료에 없애 비교될 수 없다. 하지만 외상후 성장의 상반된 개념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조사 연구(현성호, 2011)에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직급과 경력이 낮을수록 높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업무에 대한 익숙함과 능숙함이 외상후 성장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 정도는 평균 40.1(±12.98)점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을 조사한(송승훈, 2007)의 연구에서 PTSD 관련 집단(118명)의 외상후 성장 수준의 평균 34.89 보다는 높다. 이는 같은 연구의 일반 대학생 집단(153명)의 외상후 성장 수준의 평균 42.07(16.41)보다는 낮았다. 이 결과는 PTSD 관련 집단(118명)에 비해 소방공무원의 경우 Taylor와 Armor(1996)는 외상 후 성장이 위기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기존 도식과 신념을 복구하기 위한 인지적 적응의 상태와 탄력성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 한다. 소방공무원의 문제중심 대처방식 평균 점수는 49.3(±9.80)으로 남춘연(2011)이 연구한 소방공무원의 문제중심 대처방식의 평균 점수 43.05(±8.05)와 오진환(2005)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48.62(±8.08)와도 유사하다, Billings & Moos(1982)는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 개인의 심리적인 적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라고 하였다. 즉 인간의 적응 노력 과정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외상후 성장의 중요한 요인인 문제중심 대처 방식으로 생각된다. 소방공무원의 자존감 평균 점수는 27.5(±3.77)은 소방공무원의 자존감을 조사한 결과에 없애 직접적으로 비교는 힘들지만 김종란(2010)의 연구에서 본 연구 대상자와 유사한 근무환경의 3교대 간호사에 대한 자존감 평균 점수는 29.68(±2.72) 로 소방공무원의 자존감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방공무원으로써 현장 상황에서 느끼는 한계성과 제한된 환경에서 업무상 책임을 혼자서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병원내 간호업무에 비해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고 사료된다. 소방공무원의 의사소통 평균 점수는 40.3(±7.63)으로 소방공무원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가 없애 직접적 비교는 힘들지만 중년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을 연구(하태희, 2011)에서의 34.3(±5.63)보다는 높다. 이는 일반 중년보다는 소방공무원 업무특성상 민원인들과의 적극적 의사소통과 위기시 팀별로 출동이 이루어지는 동료에 등에서 차별되어지는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조직의 성과와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배주영, 2009)고 하였다. 소방공무원의 높은 의사소통 능력은 조직 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 질 수록 대응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영칠, 2013).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48.1(±11.53)로 남춘연(2011)의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지각 점수 48.15(±9.43)와 유사하다. 이호진(2011)의 연구에서 직무 스트레스 지각 평균 점수 53.1(±12.5)보다는 낮았다. 이상구(2007)의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다른 어느 직업보다 위험한 곳에 뛰어들어야 하고, 화재 재난은 예측할 수 없으며, 소방공무원은 화재나 재난현장에서 개인의 안전보다는 주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심적인 압박감이 있다고 정의 하였다. 관련된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지각은 조직구성원의 직무활동과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명되기 때문이며 대상자 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보이지만 유사한 직무의

성향 상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문제중심 대처방식, 의사소통 능력, 경력(3년 이상 6년 미만)으로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60%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문제중심 대처가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트레스 대처 전략의 일환으로 문제중심 대처방식과 외상후 성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Gunthert & Cohen, 2001; Wild & Paivio, 2004)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Armelino, *et al.*(2001)은 적극적 문제 해결 행동, 도구적인 사회적 지지 추구, 문제 집중 및 다른 행동 자제, 신중 및 자신의 행동 자제 등과 같은 문제중심적 대처가 외상후 성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Moore, *et al.*(1994)은 문제중심 대처방식이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에 비해 긍정적 적응과의 상관성이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소극적 대처방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있다는 결과들(배점모, 2008; 유지현 & Park, 2009)을 통해 볼 때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본인의 감정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등의 상황은 혼자만의 세계에서 고립감을 느끼며 우울증이나, 자살 등의 이차적인 위협에 노출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의 문제중심 대처방식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외상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 영향요인으로 소방공무원의 의사소통 능력이 외상후 성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이 높아지면 외상후 성장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주요업무 중 배주영(2009, 재인용)은 의사소통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조직 내 서열을 통해 전달되는 업무지시나 조직 구성 간에 행해지는 정보의 상호교환에 있어 조직의 목표성취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조직구성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하위체계들을 통합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목표달성과 관련되어 조직의 성과(생산성,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도 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소방공무원의 조직 내 의사소통은 현장 활동에 소통이 잘되지 않는다면 각자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단일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이 소방공무원의 긍정적 적응과 관련된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 요인으로 경력에서 3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 외상후 성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에서 오래할수록 외상적 사건에 반복 노출됨으로써 심리적 충격이 축적되는 한편, 이러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문제중심 대처와 같은 적응적 대처기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적절한 대처와 적응은 외상후 성장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지만, 이러한 심리적 충격을 견디고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지 못했다면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최근까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대한 연구보다 외상후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이 정서적 탈진을 가져오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발, 우울, 불안과의 관계, 다양한 사회 및 직업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을 살펴보았으며, 병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최혜경, 2010; 김윤정,

2011).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병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긍정적인 변화와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중심 대처방법에 대한 상담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소방공무원들의 외상후 성장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제중심적 스트레스대처의 관리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특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1차 예방으로 지역내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들의 내적 강인함과 회복탄력성을 강조함으로써 외상후 성장을 향상시키는 장기적인 정신건강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외상후 성장 증진을 위해서는 소방방재청 자체에서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성완. 2005.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강해주. 2006. 중·고등학교 체육특기학생과 일반학생의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비교.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재. 2012. 소방공무원의 전문직업적 정체성, 사회적 지지, 대처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 2011.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에 관한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2007. 직무스트레스 관리 중재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7(4): 529-539.
- 김종란. 2010.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자존감, 역할갈등,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춘연. 2011. 인지행동적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이 소방공무원의 대처방식,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대성. 2004. 직무스트레스가 피로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소방 일부 119구급대원을 중심으로. 한국응급구조학회. 12(3): 71-86.
- 박정묘. 2007. 심리경향에 따른 중년기 생의 의미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점모. 2008. 소방대원의 출동충격, 사회적지지, 대처행태와 PTSD증상 및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주영. 2009. 병원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유형과 간호업무성과의 관계. 고신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송승훈. 2007. 한국관 외상후 성장 척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옥경. 2005. 출동대원의 현장안전관리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진환. 2005. 소방대원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소진 및 신체적 증상의 영향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지현. 2006. 소방공무원의 PTSD증상과 정서 상태, 대처방식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구. 2007.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진, 조용래. 2009.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지각된 통제감과 회피 대처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8(2): 415-436.
- 이지영. 2007. 소방대원의 정서지능, 적극적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가 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진. 2011.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총론. 11(1): 107 -130.
- 전유진. 2010. 경찰공무원의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윤경. 2008. 지역소방공무원에서 사고 및 재해 경험과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인명. 2009. 의도적 반추와 낙관성이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칠. 2013.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주희. 2011. 일 지역 암환자의 외상후 성장. 부산가톨릭대학교 생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경. 2010.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정서적 탈진, 신체증상, 사회 및 직업기능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태희. 2012.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 구축.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성호. 2010. 위험유발 요인이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서울 및 경기지역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ar-on, R. 2000. Emotional and Social Intelligence: Insights from the Emotional Quotient Inventory. R. Bar-on & J. D. A. Parker. eds.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San Francisco: Jossey-Bass.
- Beck, A. T. 1974.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Cohen, F., M. Horowitz, R. Lazarus, R. H. Moos, L. N. Robins, R. M. Rose, and M. Rutter. 1982.

- Panel Report on Psychosocial Assets and Modifiers of Stress.* G. R Elliott & C. Eisdorfer. eds. New York: Springer.
- Kubiak, L. C. 1987. *A School-based, Stress-inoculation Approach to Stress Management Training with Adolescent: Effects on Locus of Control, Self-concept, State-trait Anxiety and Social Behavior.* Florid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 Lazarus, R. S. and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Mitchell, J. T. and G. S. Everly. 1992. *The Prevention of Work-related Post Traumatic Stress: The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Process: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APA and NIOSH Conf.* Washington, DC: on Occupational Stress.
-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9. *The Provision for Safety Supervision of the Fire Services Ac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Mitchell, J. and G. Everly. 1998.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The Basic Course Workbook.* Ellicott: International Critical Incident Stress Foundation, Ins.
- Parker, D. F. and T. A. Decotiis. 1983. Occupational Determinants of Job Stres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2: 160-17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Press.
- Tedeschi, R. G. and L. G. Calhoun. 1994.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Tedeschi, R. G. and L. G. Calhoun.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김희숙: 경북대학교에서 간호학박사학위(논문제목: MBTI 활용 정신 간호 중재 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환자의 우울, 대인관계 및 금주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2004년 2월)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북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며 구미시정신보건센터장과 대구시재난피해자심리지원센터장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재난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인지행동요법을 적용한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이 소방공무원의 문제중심대처방식,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2013)”, “교사를 위한 학생자살위기관리 매뉴얼 개발(2011)” 및 “초중고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2011)” 등의 논문과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있다 (hskim8878@knu.ac.kr).

남춘연: 경북대학교에서 간호학 석사학위(논문제목: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이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적극적인 대처방식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2011월8월)를 취득한 후 현재 경북대학교 간호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 이다.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구시 재난 피해자 심리 지원센터 요원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과 재난 경험자들의 심리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인지행동요법을 적용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이 소방공무원의 문제중심 대처방식, 직무 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2013)” “청소년의 충동성과 신체적 자기개념, 정서지능 및 공감능력(2014)” 등이 있다 (cosove@nate.com).

이호진: 경북대학교에서 간호학 석사학위(논문제목: 출동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 2011월2월)를 취득한 후 현재 경북대학교 간호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 이다. 대구시 재난 피해자 심리 지원센터 요원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과 재난 경험자들의 심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논문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지각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2011)” “소방공무원의 사건충격에 미치는 영향요인(2013)” 등이 있다(hojin257@hanmail.net).